



Cyber Shopping Expo '98 성과

EC · MM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C · MM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협회가 국내의 인터넷쇼핑몰 45개 업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마케팅 이벤트 행사를 사이버쇼핑엑스포'98(이하 ECEXPO)이 '98년 11월 14일자로 행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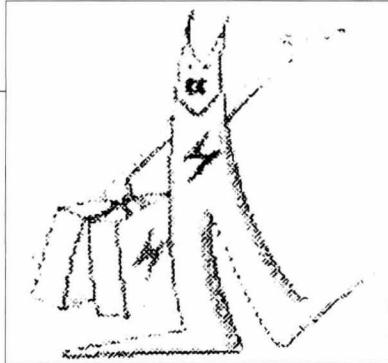
우선 행사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행사 협찬기관(인텔, 한국오라클, 삼성전자, LG텔레콤)과 지원기관(한국정보문화센터, LG인터넷, 체성회, 신세계I&C,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구:S/W지원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메타랜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외에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인사와 기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ECEXPO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등은 정보화사회 '98년도 7·8월호와 9·10월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동 행사에는 45개 업체에 47개의 인터넷쇼핑몰이 참여를 하였으며 행사상품은 협회모집 320여종 상품과 행사참여 쇼핑몰들의 등록 상품 1만여종으로 운영되었다.

ECEXPO 행사 운영시스템의 H/W는 삼성전자의 협찬하에 P9500 NT서버로 구축하였고 S/W는 한국오라클의 협찬하에 ICES 및 Web 서버로 구성하였으며 응용프로그램은 보승정보시스템의 개발하에 사용자모드, 센터마스터 모드, 참여업체 몰 마스터 모드등으로 구성하였다.

행사에 대한 홍보는 ECEXPO에 대한 캐리터(넷핑), 심볼, 로고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행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신문, 라디오, TV등에 22회, 언론광고가 3개신문에 5회, 온라인상으로는 PC통신, ISP, 참여쇼핑몰 사이트등 62개 사이트에 배너광고등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이밖에도 지하철광고(1,2,3호선 300량 2개월), 포스터, 리플렛, 캠페인버튼, 차량용스티커,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 졌다.

행사기간동안 ECEXPO의 사이트 등록상품 및 업체에 대한 방문은 5만여 회를 상회하였으



나 당초 목표하였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하여 얻은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마인드 확산 측면으로 ECEXPO 행사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 촉진 행사로서 일반인들의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고, 정부 및 입법기관등의 공동주최와 언론사 및 공공단체 공동 주관 행사로 개최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성 확산에 기여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 공동의 마케팅 Promotion행사로서 업체 상호간 협력 및 공동활동의 전기를 마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품 입점 안내를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이드 고취에도 일조를 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용 활성화 측면으로 인터넷쇼핑 이용자들이 여러 쇼핑몰을 개별 접속할 필요 없이 행사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쇼핑몰과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는 One-Stop Shopping을 실현함으로써 인터넷쇼핑 이용에 대한 고객의 이용 편이성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로는 사업환경개선 측면으로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 알선, 택배 대행업체 알선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상 고비용 요인이 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비용인하 효과가 있었고 상품분류체계, 고객등록내용, 인터넷쇼핑몰 운영 프로세서 등에 대한 기존 운영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ECEXPO 사이트를 인터넷쇼핑 검색 및 이용 사이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이트개선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ECEXPO 사이트가 B-to-C 전자상거래 Portal Site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 시킬 계획이며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경주하고 인터넷 쇼핑몰 Hall Mark제도 도입실시, Mall Master 교육 및 육성 사업등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